

세계 최고 대학 연구소 경험 기회 제공

전북대, 학생 10명 선발... 미국 하버드대·MIT 등과 공동 기획 교육 이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생들에게 세계 최고 대학의 연구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학 LINC3.0 사업단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과 연계해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학 중 10명의 학생을 선발해 2주 동안 미국 대학들과 공동 기획한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기반 사업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했다.



전북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세계 최고 대학의 연구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또한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화이자 와 MIT 미디어연구소, AI연구소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등을 탐방하고, 학계와 산업계 협업 전문가(교수, 과학자)들이 참여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첨단신기술을

주제로 한 사업화 및 제품 제작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캡스톤디자인 활동도 수행했다. 지난 8월 열린 성과 발표회에서 임

효은 학생(화학공학부)은 "세계 최고 대학인 하버드, MIT, UC Berkeley 학생 및 멘토 교수님들과 함께하며 무엇보다 큰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경호 학생(기계설계공학과 석사과정 재학)은 "꿈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전북대와 LINC3.0 사업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철규 연구부총장겸 LINC3.0사업단장은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발 전부터 해외교수진과 함께 온라인 사전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하버드, MIT Lab들과 함께, 미네르바 스쿨이나 에콜42(Ecol42, 동료와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식 프로젝트)이며, 교수는 코치의 역할을 담당할 형태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공동기획하고, 더불어 지역과 기업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력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부작용 우려”

전교조 전북지부 “학교에 업무 부담 감사 기능은 약화 가능성 높아” 비판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육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2023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시범운영 계획'에 대한 문제제기와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관련 업무가 증가한다는 것. 교감은 감사반장이 될 뿐 결국 교사들이 감사관(감사위원)이 돼 점검표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결국 이제까지 교육청이 해오던 일을 학교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학교자율감사는 학교마다 기존 직원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 동일한 사유임에도 어떤 학교는 주의·경고를 주는데 어떤 학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자율감사를 제대로 해야 관리자 책임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일을 맡고 있는 부장교사들에게 주의·경고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에 역을 한다고 느끼거나, 형평성·공정성이 없다며 문제제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즉, 감사의 공신력이 저해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문제가 발견해도 교사

간 관계성 때문에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교육청이 이를 인지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져 감사의 기능·목적 이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지적 사항이 많으면 교육청 감사사가 추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관리자나 (사법)법인에 밀려 교사에 대한 지적·처분만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에서 원천적으로 넘겨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논의에서도 기피 업무 해소 문제가 중요한 의제라고 거듭 밝혔다.

끝으로 전북지부는 "상황이 이러 한데도 오히려 교육청 감사 인력을 줄이고 감사 기능을 학교로 떠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힘든 환경을 함께 헤쳐나가기 할 교사 공동체에 오히려 서로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업무까지 맡긴다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은성 기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전주대,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학사 420명·석사 160명 박사 54명 등 총 634명 배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6일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졸업생 개별적으로 학위증과 상장을 수여하는 대신 22일까지 일주일 간 학위복 대여 및 졸업생 사진 촬영을 위한 각 단과 대학별 포토존을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전주대에 따르면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 졸업생은 학사 420명, 석사 160명, 박사 54명 등 총 634명으로, 상담심리학과 박세라 학생 등 90명이 수상의 기쁨도 누렸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1964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학사 8만2,071명, 석사 1,979명, 박사 1,009명 등 총 8만5,053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박진배 총장은 "재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지난 몇 년간 지식을 추구하며 성장해 왔고 이제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수퍼스타가 되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지난 16일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연 가운데, 졸업생들이 대학 전담관 앞에서 학사모를 위로 던져 올리고 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우석대-완주군, 한의약 건강증진 ‘맞손’

이달 중순부터 고혈압 환자 대상 프로그램 진행

완주군이 우석대학교와 손잡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한다.

17일 완주군과 우석대에 따르면, 전남 완주군은 우석대와 완주군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적인 상호협력하며, 지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완주군민에게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상호교류 및 자문협조, 질병예방, 건강증진,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완주군 보건소와 우석대 한의학과 협업으로 '한의약

으로 배워보는 슬기로운 고혈압관리'라는 사업을 상호협업체제를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교수와 보건소 공중보건간호사의 강의와 안부, 복부, 팔뚝, 발목, 호흡기, 차 마시기 등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실습을 통해 대상자들이 자신의 혈압수치를 관리하고,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상호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한의약 건강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완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인문학 특강 마련

서철원 소설가 초청 강연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안병호)은 18일 서철원 소설가(사진)를 초청해 '역사적 사실과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문학 특강은 전북대 평생교육원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서철원 소설가의 장편소설 가운데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의초상'과 제9회 훈불문학상을 수상한 '최후의 만찬'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서철원의 작품세계 및 작품 소개와 전주를 포함한 전라도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초로 한 인문학적 다양성에 대한 강연도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전북지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cc.jnu.ac.kr/>)와 전화(063-288-0022)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현장 발생 중대재해 예방·대응능력 강화

도교육청-안전보건공단, 학교 공사 현장 안전점검... 10월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학교 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와 교육청 기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더불어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학교 관계자 등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30일까지 완주 용봉초등학교를 포함해 총 6개 현장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10월까지 4곳을 더해 총 10곳의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

대 사고유형과, 은열질환 발생과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점검 후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동일·유사 작업에서 발생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각급 학교와 기관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원 AI·디지털 역량 키운다

전북도교육청, AIEDAP 연수 프로그램 운영

AI 융합교육 방향과 이해·수업 사례 등 안내

'리더' 19일까지 전주·'마스터' 24~26일 광주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EDAP은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교육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 체계적인 교사 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AI 융합교육

의 방향과 이해 △AI 융합수업 사례 △AI 융합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리더 및 마스터 교원으로서의 역할 이해 등이 있다.

AIEDAP 리더 교원 양성 연수는 17~19일 전주에서, 마스터 교원 양성 연수는 24~26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전북의 모든 교원이 AI·디지털 교육 소양과 AI 융합교육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도교육청, 올 하반기 재산담당 공무원 맞춤형 교육

공유재산 법령·유권해석, 관리 실무 등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18일 이틀 동안 충남 아산시 캠프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하반기 재산담당 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이다.

이번 교육에는 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 재산업무

담당자 등 80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법령 및 유권해석 △공유재산 관리 실무 △무단 점유 및 반납금 관리 등이다.

최신자 재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산업무 담당자들이 각자의 실무능력을 끌어올리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